**시 <꽃> 중학교 3학년 2015년도 개정교육 과정**

**주제**

김춘수의 시, 꽃은 존재라는 추상적 개념을 등장하는 시어들로 구체화하며 전개된다.

서론

화자의 존재론적 입장을 알아야하는데, 그 이유는 이 시의 주제가 존재론과 인식론이기 때문이다. **화자의 존재론적 존재함은 곧 누군가로부터의 인정이며, 인식**이다. 그러므로, 화자는 자신의 입장을 ‘나’와 ‘그’에서, ‘우리’로 **확대**시켜나간다. **그것이 꽃의 전개**이며, 김춘수가 의도한 존재론이다.

이 시에서, **존재자는 꽃이며, 눈짓이란 시어로 불린다.**

**전개**

**이름을 부르는 행위(나의 꽃으로 만드는 행위)**를 다른 이에게 실행하지 않았을때, 다른 이는 그저 나에게 존재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, 곧 화자가 말하고 있는 의미 없는 것이다.

화자가 다른 이의 이름을 부름으로써, **다른 이는 의미가 부여되며 곧 화자의 존재론적 입장에서의 다른 이는 존재**하게 되는 것이다.

이것은 화자 자신에게도 유효한것이라, 시에서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며 **갈망적인** 심미적 체험을 독자에게 선사한다.

**숨겨진 뜻**

시에서 ‘빛깔과 향기’란 시어로 존재의 본질을 매우 아름답게 지칭하는데, 전체 문장을 보면 아래와 같다.

‘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.’ 이것에서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‘누군가’는 **나를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이**가 된어진다.

**시의 문법 오류 - 시적 허용**

알맞는 - 알맞은

잊혀지지 - 잊히지